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

전하시화-문화지반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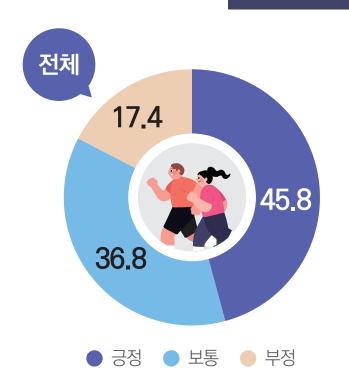
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주요결과1 정퇴의건강실패 및인식

긍정적이지 못한 건강 인식

전체 응답자 중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식은 절반 이하

그림1.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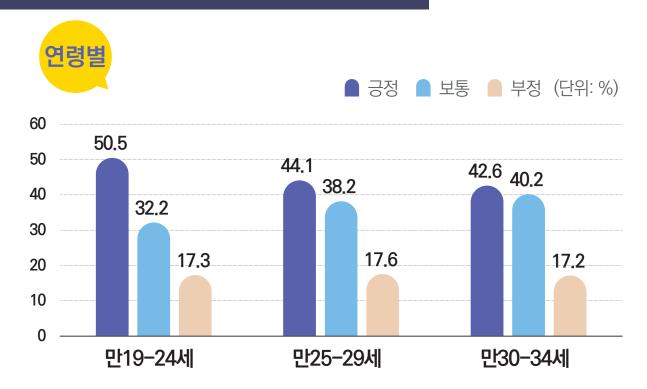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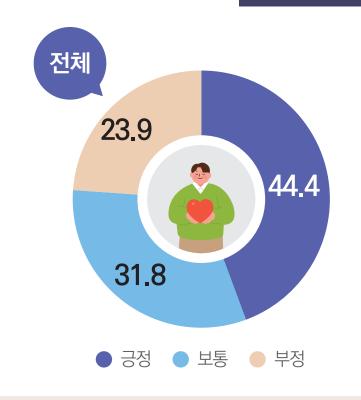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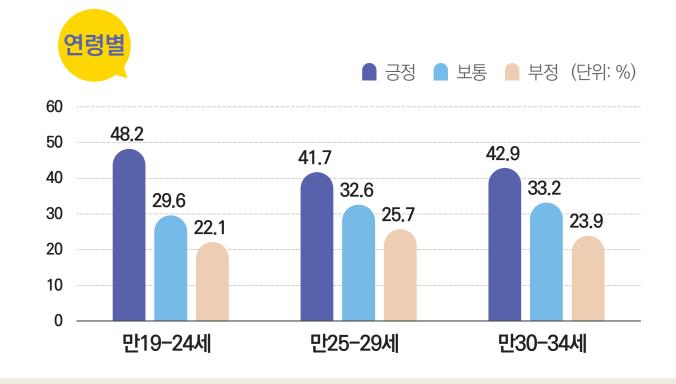


그림2.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





주요결과1 정퇴의 건강실패 및 인식

의료비의 경제적 부담

전체 응답자의 생활비 중 의료비 비중은 대개 5% 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부담됨

그림3.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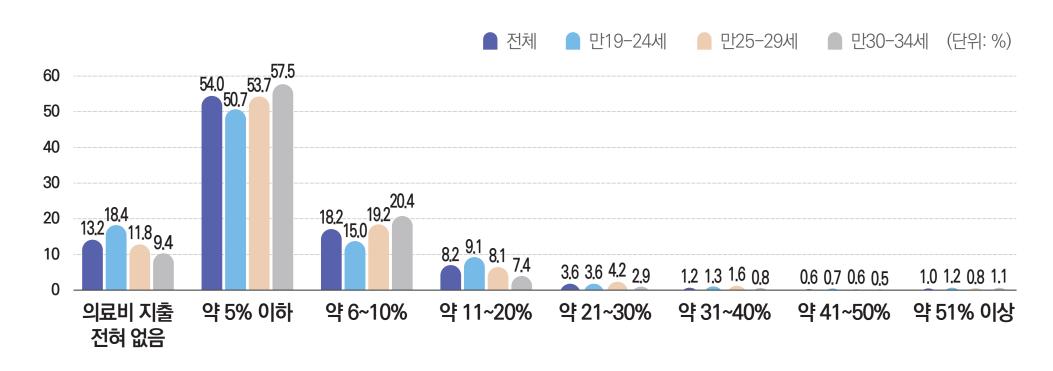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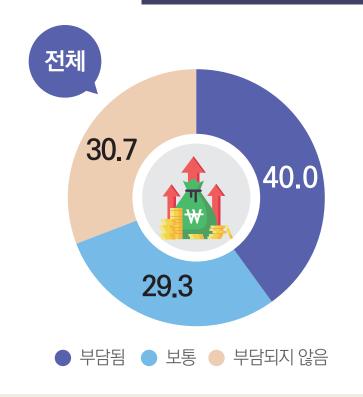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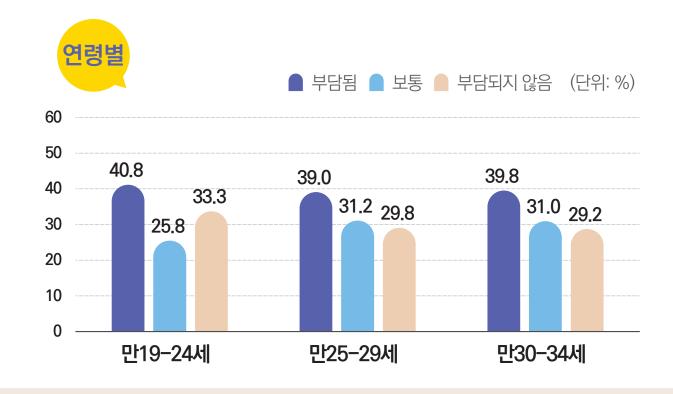


그림4.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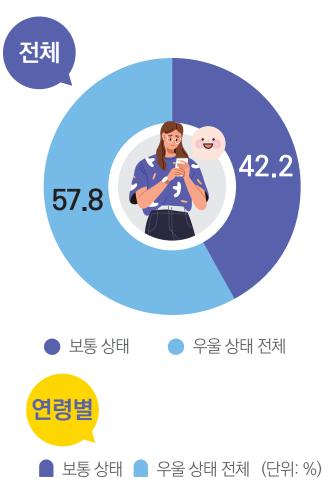


주요결과1 청년의 건강실패 및 인식

우울, 자살생각, 건강 빈곤 의식

그림5. 우울증 증상 실태

청년의 절반 이상이 우울 상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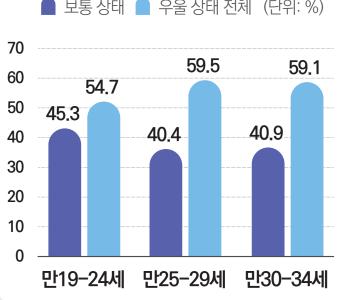


그림6. 자살생각 실태

청년들 3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생각을 한 적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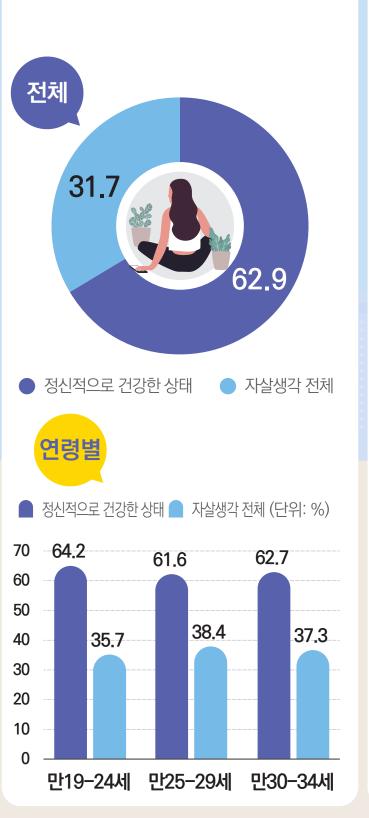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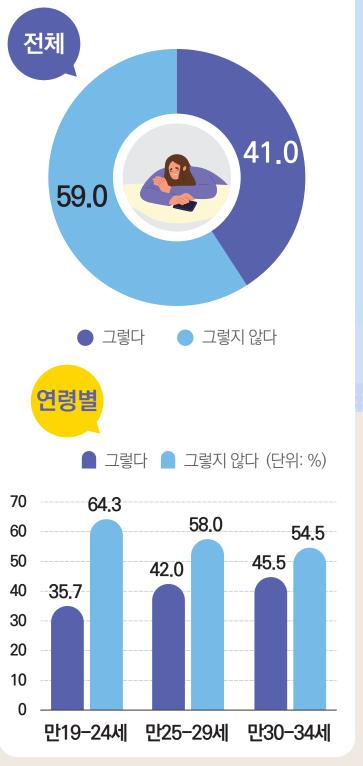


그림7.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의식

청년들 중 자신이 건강 빈곤층 이라는 인식이 41%이며, 연령 대가 높을수록 빈곤의식이 증가



주요결과2 정퇴의사회 • 문화자본

정서적·경제적 지지자

그림8.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

청년 중 절반 가까이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주변 사람이 1~2명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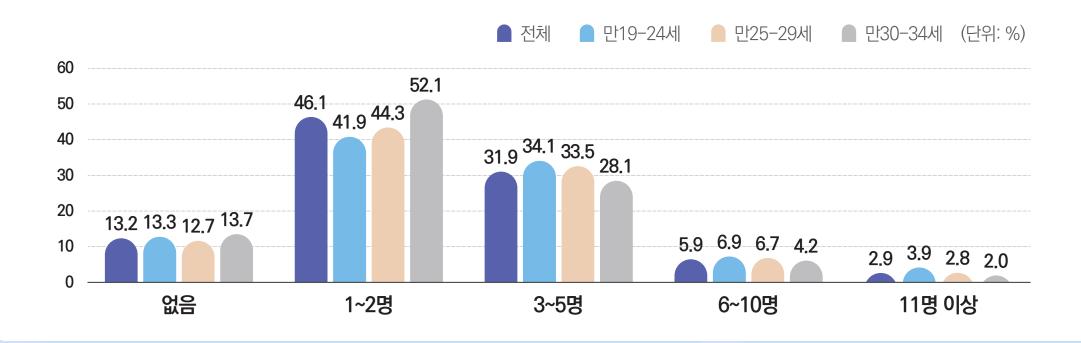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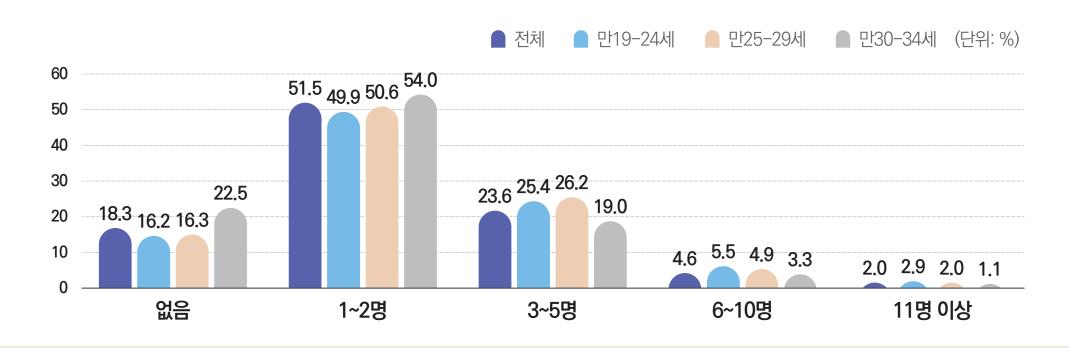


그림9.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

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1~2명 정도



주요결과2 정퇴의사회 • 문화자본

혼밥·혼술

청년들 중 최근 한 달 동안 혼밥 횟수는 11회 이상

그림10.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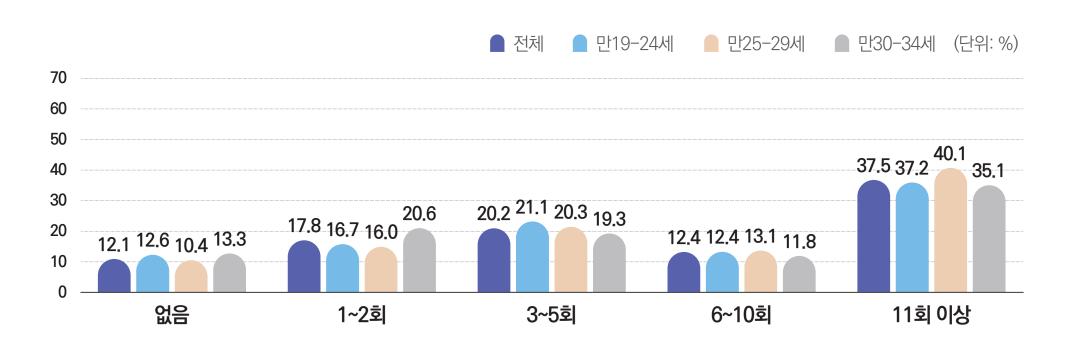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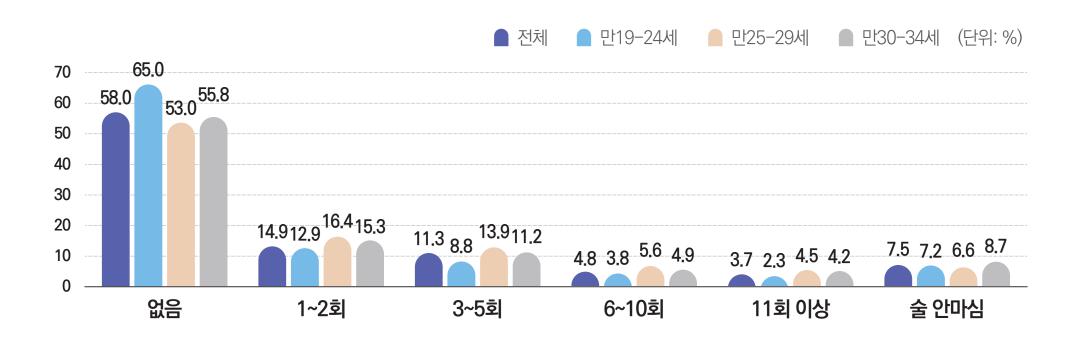


그림11.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



주요 결과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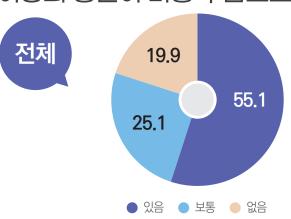
정퇴의사회 · 문화자본

44

여가 및 문화생활, 사회·문화자본 빈곤 의식

그림12.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

절반 이상의 청년이 비용 부담으로 여가·문화생활 못하였고, 여가·문화생활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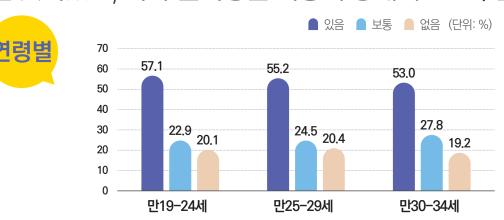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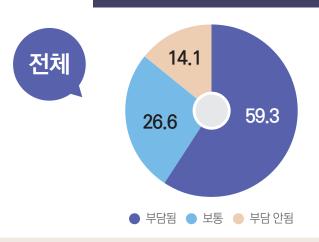


그림13.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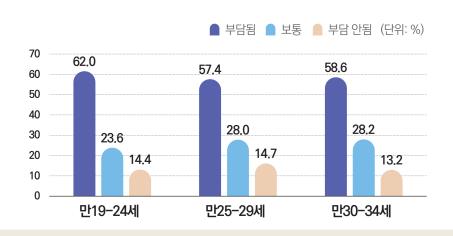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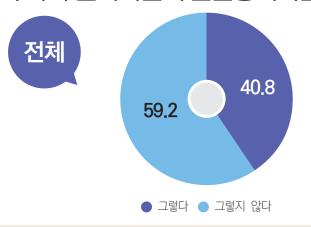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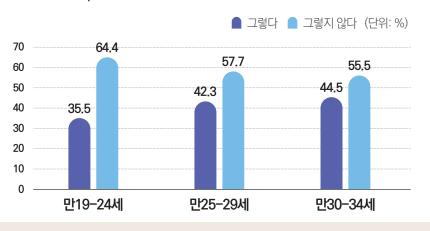


그림14. 사회·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의식

자신이 사회·문화자본의 빈곤층이라는 생각하는 청년이 40.8%이며,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의식이 높아짐







주요 결과3

정토를이 내리는 정부의 정책

그림15.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

건강분이에서 청년들은 정부 정책 중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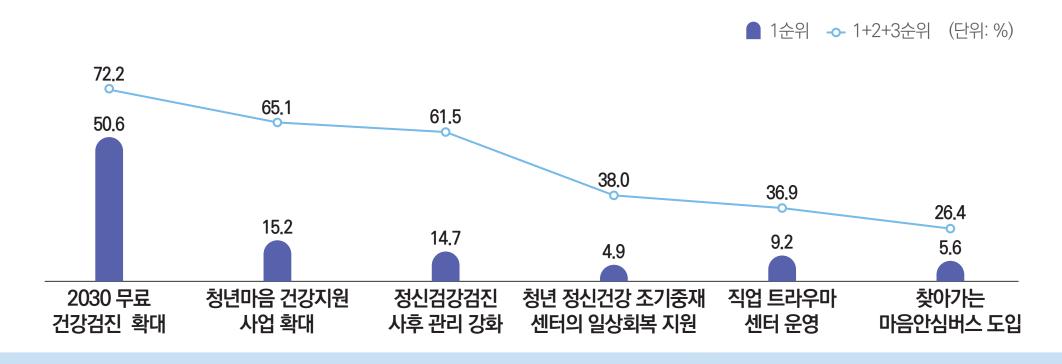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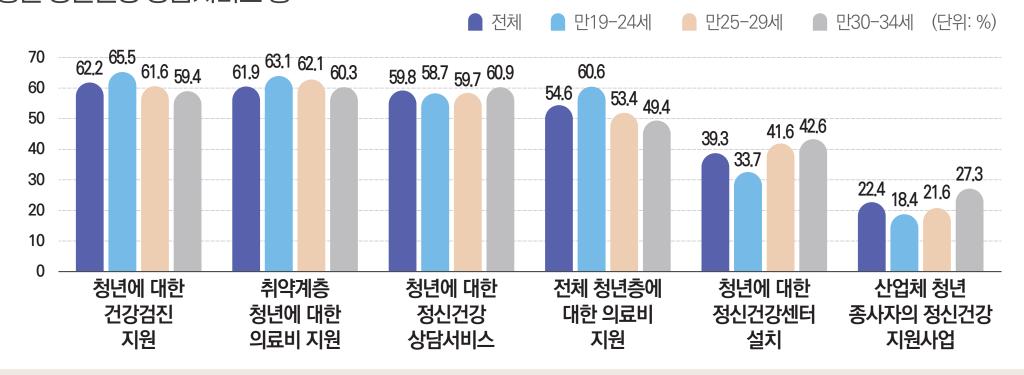


그림16.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

건강분이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은 청년 건강검진 지원, 취약계층 청년 의료비 지원, 청년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등



주요 결과3

정토를이 내리는 정부의 정책

그림17.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

사회·문화자본 분야에서 청년들은 정부 정책 중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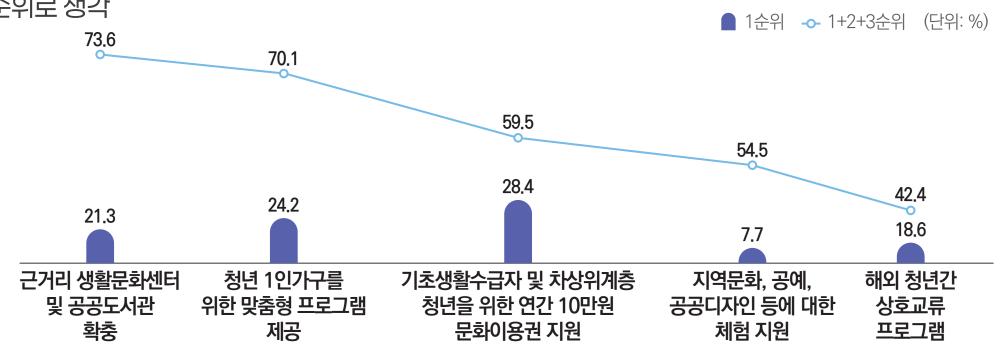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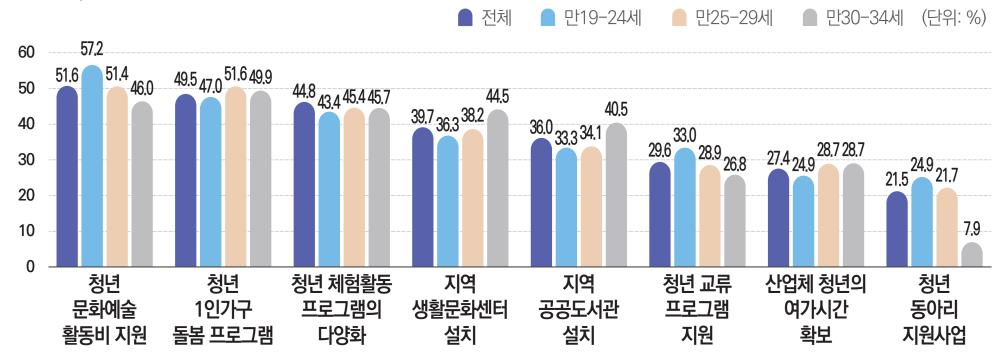


그림18.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

사회·문화자본 분야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은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, 청년 1인가구 돌봄 프로그램, 청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



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

전환자시회 문화적기반에 정책적 지원이 질실하다



김형주 선임연구위원 김정숙 선임연구위원

